

# 이낙연 “텐트 크게 쳐달라” 구애 이준석 “뒤통방이면 참여 안해”

민주 탈당파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 나란히 참석  
‘제3지대 빅텐트 협력’ 강조  
이낙연측 운영찬 민주당 남아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조용천 공동추진위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그룹들의 제3지대 세력 연대를 위한 이른바 ‘빅텐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당 창당에 나선 인사들이 양당 기득권 타파에 공감하며 ‘제3지대’ 협력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일부에선 ‘신중론’을 내비치면서 총선 전까지 ‘제3세력들의 조기 합당’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점점 심화하는 정치 양극화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할 대안 세력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좁혀잡기 공통 분모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총선 전에 손을 잡고 한 지붕 아래 모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제3지대 세력들의 창당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이른바 ‘빅텐트’ 연대는 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탈당 그룹의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해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탈당 그룹의 ‘미래대연합’에는 비명계인 김중민·조용천·이원욱 등 3명의 의원만이 참여했으며, 이낙연측 인사로 구분되는 운영찬 의원은 민주당에 그대로 남았다.

한국의회방향 대표와 새로운선정급대 대표도 참석해 ‘제3지대 빅텐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범식 축사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부와 정당을 선택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국민 복권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정치해방의 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금 전 다섯 분의 창당위원장 가운데 정대근 전 의원이 빅텐트를 말했다”며 “텐트를 크게 쳐 주십시오. 추우면 어떤가. 가까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 미래’가 이번 주 초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미래대연합’과의 선거 연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중인 이준석 전 대표는 축사에서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며 “그날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빅텐트지 사실 나는 텐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텐트는 언제 아영하다가 견어갈 것 같은 느낌”이라며 “그래서 좀 튼튼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며 “이것이 뒤통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는 제3세력들이 총선을 앞둔 ‘합종연횡’이 아

니 향후 거대양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정당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가 “세대 통합 모델이 될 수 있다. 큰 텐트를 쳐달라”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최대 공약수를 찾겠다”면서 한발은 빼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이준석 전 대표는 한 방송사에 출연해 “이견이 다수 노정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턱대고 합치자, 아님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는 당장 저희 당내 구성원들도 그렇게 끌려 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는 행사 직전 미래대연합 공동 창당위원장인 김중민 의원과 여의도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3차 회동도 했다. 이들은 약 20분간의 회동에서 양당 구조 타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김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각 신당 세력의 창당준비작업과 세력 간 향후 ‘빅텐트’ 연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합세 과정에서 각 세력 간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최권일 기자 cki@연합뉴스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김영록 전남지사 민선 8기 18개월 연속 1위

2위 그룹과 10% 가까운 격차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18개월 연속 1위에 올랐다.

김 지사를 위협했던 김동연 경기지사가 4위로 밀려나는데 2위 그룹과의 격차가 10% 가까이 벌어져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는 사상 최대 국비 9조원 확보,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 합의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지사가 신재생에너지·우주항공산업과 관광을 전남의 미래 자산으로 설정해 관련 기반시설과 기업을 유치하고, 그동안 담보상태였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기반시설을 속속 설치하는 실적을 보인 것이 민선 7기부터 도민들의 꾸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월 발표한 ‘2023년 12월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

행 긍정 평가 조사’ 결과, 김 지사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67.1%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이철우 경북지사(57.9%), 3위는 김관영 전북지사(57.8%), 4위는 김동연 경기지사(57.5%), 5위는 김태흠 충남지사(57.4%)가 차지했다.

김 지사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 이후 18개월 연속 1위를 지켰다. 앞서 민선 7기 때도 지방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한 43개월 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30차례에 걸쳐 선두를 차지했다.

전남은 주민생활 만족도에서도 광역단체 1위를 기록했다. 66.3%로 전남보다 5.3%포인트 상승하면서 6단계를 뛰어넘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지난해 11월27~29일, 12월26~30일 전국 18세 이상 1만3600명(해당 월 기준·시도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2.5%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이재명 대표 이번주 복귀 ‘촉각’

선거제 개편 등 과제 수두룩

신중하게 복귀 시점 고심 중

흥기 피습 사건 여파로 퇴원 후 자택에서 회복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여의도 복귀 시점을 고심 중이다.

지난 2일 사건 발생 직후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이 대표는 그로부터 8일 뒤인 지난 10일 퇴원해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열흘 넘게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기간 비명계(비이재명)의 탈당과 공천 잡음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조기 복귀를 바라는 기류가 일었다.

무엇보다 4·10 총선이 석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선거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이 당내에 산적해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원욱·김종민·조용천 의원 등 비명계 3인방의 탈당으로 민주당의 분열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심력을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비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진영 성향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져 ‘자객 공천’ 논란이 이는 등 계파 간 대립도 여전해 이 부분 역시 정치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정리가 필요하다.

당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연세 탈당이 있었던 만큼 당 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의 복귀 일정에도 그 내용이 담길 것이

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특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유튜브 방송에서 “뒤통방이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대선 당시 총선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서 이 대표는 선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병상에 있는 동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 곳곳을 누비며 이슈와 메시지를 주도한 것도 이 대표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실제로 한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 대표와 한 위원장이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다.

당 안팎의 여러 상황이 이 대표의 복귀를 재촉하는 형국이지만, 이 대표 측은 당사자의 몸 상태와 의료진 소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복귀 시점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금주 안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지난해 24일간 단식으로 한 차례 건강에 타격을 받은 만큼 당 상황과 무관하게 여의도 복귀가 늦춰질 수도 있다.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사건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의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이 대표가)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 민주 “이재명 정치테러’ 정부가 축소 왜곡...이번주 총리실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재명 대표 흥기 피습 사건과 관련, 관계 당국의 사건 축소·왜곡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전 국민의힘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에 의해서 이 테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과 수사를 축소·왜곡하려는 의도,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제

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의 ‘1cm 열상’으로 경상 추경’ 문자 메시지에 대해 “누가 발송을 지시했고 그 문자의 작성 경위는 무엇이고 그 문자가 어느 정도 유포됐는지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며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직후에 거의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

에 비행 현장을 경찰이 물결레로 청소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명백한 증거 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소방, 경찰 당국, 총리실 이 세 기관이 전반적인 축소 왜곡 행위를 한 것”이라며 “변밀히 주시하고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m<sup>3</sup>/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테리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테리인더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 앞 위치